

보도시점 : 2023. 4. 25.(화) 11:00 이후(4.26.(수) 조간) / 배포 : 2023. 4. 25.(화)

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 용산어린이정원, 5월 4일 개방

- 용산 미군기지, 120년 만에 국민 소통공간으로 새 단장
- 국토부·환경부 공동 환경 모니터링 통해 안전함을 확인
- 방문객 사전예약은 4월 25일 11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에서 가능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5월 4일(목) 14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‘용산어린이정원’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한다.

- 용산공원 임시개방 부지는 다가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거닐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“용산어린이정원”으로 명명하였다.
- 기지 완전반환 후 추진될 용산공원의 정식조성에 앞서 국민들이 미군기지 반환의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임시개방을 진행하며, 공원 조성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‘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용산공원’의 취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이번 임시개방은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되던 부지가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- 용산 지역은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,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됨에 따라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.
- 2000년대에 들어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결정되면서 기지반환이 시작되었고, '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간 합의가 적극 추진되어 기지반환이 가속화되었다. 그 결과 용산기지 약 243만㎡

(약 74만 평) 중 '22년에만 58.4만㎡(약 18만 평) 부지를 반환받았으며, 그중 30만㎡(약 9만 평)를 우선 국민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.

□ 또한 이번 임시개방은 작년 3월 당선인 기자회견 시 “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”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○ 용산어린이정원은 대통령실과 연접함에 따라 국민 여가·휴식공간을 넘어 정부와 국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, 다양한 국민참여 행사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I. 용산어린이정원 공간구성

□ 용산어린이정원은 주출입구 입장 시 마주하게 되는 장군숙소 지역, 정원의 중심이 되는 잔디마당과 전망언덕,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 필드로 구성된다.

○ (**장군숙소 지역**) 가장 큰 특색은 미군 장군들이 거주했던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과 나무로 된 전신주 등이 자아내는 이국적 풍경이다.

- “홍보관”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미군 주둔, 그리고 이번 임시 개방까지의 120년의 기록이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되어 있으며, “전시관”에는 이번 개방을 기념하는 미디어아트 기획전시*가 개최된다. 그리고 잔디 정원을 갖춘 “이벤트하우스”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.

* 작가 : 사일로랩, 작품명 : 온화 (溫火, Gentle Light) – 따스한 불빛으로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의 미래를 밝히다

- “용산서가”에는 어린이와 일반 방문객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, “기록관”에서는 과거 용산기지에 거주했던 미군가족의 생활상과 미8군 클럽에서 태동했던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등을 살펴볼 수 있다.

- 잔디마당과 맞닿아있는 “카페 어울림”에서는 테크에 앉아 푸르른 잔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, ‘소통’과 ‘연대’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탄소저감 원두 사용, 발달장애인 제작 간식 판매, 용산지역 청년카페 협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될 예정이다.
- (잔디마당과 전망언덕)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 모두 네 곳의 미군 야구장이었던 공간은 7만㎡(약 2만 평) 규모의 “잔디마당”으로 새롭게 단장했으며, 플라타너스가 아름다운 “가로수길”과 계절 따라 피는 다양한 들꽃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도 함께 조성하였다.
- 잔디마당 끝자락에 위치한 “전망언덕”에 올라서면 반환부지 전체의 풍경뿐만 아니라 대통령실, 용산 도심, 국립중앙박물관, 남산 등 주변에 위치한 주요 장소들도 조망해볼 수 있다.
- 아울러, 잔디마당과 전망언덕에 심은 초화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푸르르게 제 모습을 갖춰가고, 방문객들은 계절에 따라 더욱 풍성한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(스포츠필드) 동측 끝편에 위치한 “스포츠필드”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조성된다.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,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.

II. 용산어린이정원 환경관리

- 국민들이 안심하고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환경 모니터링 등을 시행했으며 안전함을 확인하였다.
- 작년 9월과 11월, 올해 3월에 실내 5곳, 실외 6곳에 대해 공기질 측정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했고,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역, 건강에 민감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및 어린이공원 등 주변지역 네 곳과의 비교측정을 진행하였다.
- 모니터링 결과, 실외는 측정물질 모두 환경기준치보다 낮거나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했고,

- 실내도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등 관련 환경기준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.

□ 또한, 이와 별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번에 개방되는 전 지역에 걸쳐 추가로 진행하였다.

- 15cm 이상 두텁게 흙을 덮은 후 잔디나 꽃 등을 식재하거나 매트·자갈밭을 설치하여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하였고, 지상 유류 저장 탱크 제거 등을 통하여 안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만한 요소들을 원천 차단했다.

□ 향후에도 정부는 환경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시개방 기간 동안 환경 모니터링을 촘촘히 시행하여 안전성을 철저히 유지해나갈 예정이다.

III. 행사계획 및 이용안내

□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하여 5월 한 달간 어린이와 가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.

- 개방 직후에는 어린이를 위한 인기캐릭터 전시와 화분만들기,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행사, 그리고 버블쇼, 풍선아트 등 각종 공연이 진행되며, 어린이 그림 전시도 이뤄진다.

- 이 외에도 스포츠필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야구 및 축구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.

-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 구석구석을 탐방할 수 있는 “스탬프 투어이벤트”도 진행되며,

- “가로수길 버스킹 공연”, 전문가 해설과 함께하는 “용산어린이정원 워킹투어” 등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.

□ 그밖에 생활체육행사, 클래식 음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으로, 자세한 사항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(yongsanparkstory.kr)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.

- 안전하고 편리한 방문을 위하여 사전예약*을 거쳐 입장할 수 있으며, 예약은 4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. 아울러 방문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접수 후 별도절차를 거쳐 즉시입장도 가능하다.

* 내국인은 방문 5일 전, 외국인 방문 10일 전까지 예약 필요하며, 4.25~4.26일 한정으로 외국인은 방문 8일 전 예약을 허용(4.25일 예약 시 5.4일 입장 가능)

-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(입장마감 오후 5시), 휴관일은 1월 1일, 설·추석 당일 및 매주 월요일이다.
-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주출입구 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결되는 부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, 별도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(장애인차량 등 제외)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이번 임시개방은 용산공원의 역사에 있어서 2003년 미군기지 반환이 합의된 후 이뤄낸 가장 큰 진전”이라며, “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미래세대가 주인이 되는 공원을 만들어 갈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 <조성> <환경>	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	책임자	과 장	윤종빈 (02-2131-2030)
		담당자	사무관	최정은 (02-2131-2036)
			사무관	권영일 (02-2131-2035)
			사무관	김찬웅 (02-2131-2026)
공동배포 <환경>	환경부 토양지하수과	책임자	과 장	윤은정 (044-201-7170)
		담당자	사무관	안성보 (044-201-7174)
<운영관리>	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용산공원사업단	책임자	부 장	최명실 (02-6716-2840)
		담당자	차 장	고민정 (02-6716-2841)

참고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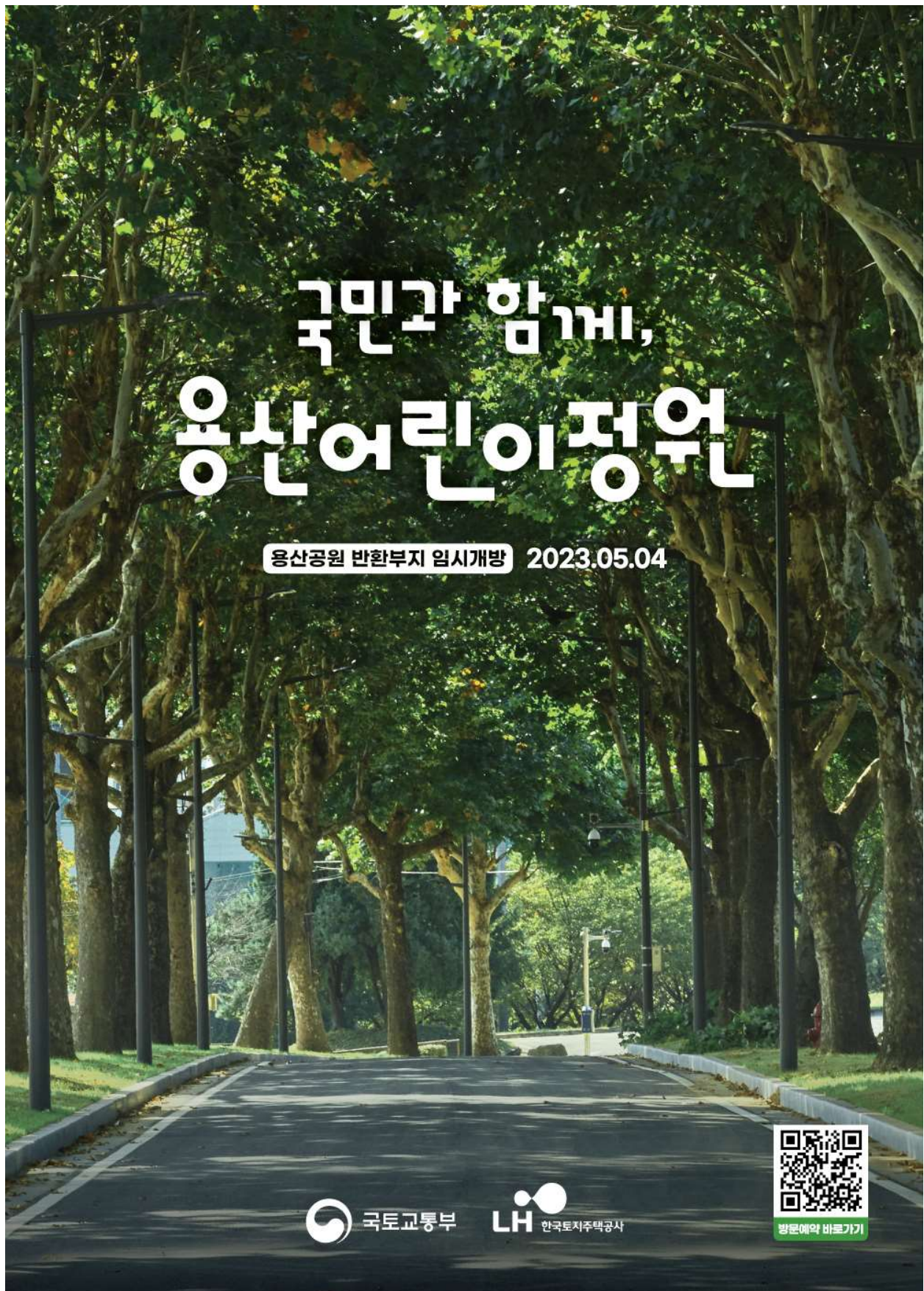
용산어린이정원 조감도 및 시설안내

< 조감도 >



< 시설안내 >





국민과 함께, 용산어린이정원

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2023.05.04



국토교통부



한국토지주택공사



방문예약 바로가기